

박현주의 '국경없는 투자' 결실... 미래에셋 ETF 421조 돌파

韓·美·日 등 13개 시장서 운용
글로벌 ETF 운용사 세계 12위
지수형 ETF, 연금 등 투자수요 흡수
Global X 운용자산 986억달러 기록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AUM) 421조원을 기록하며 'ETF 4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구축한 글로벌 ETF 플랫폼이 세계 12위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국경 없는 투자' 전략이 본격적인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5월 말 기준 한국·미국·캐나다·호주·유럽·홍콩·일본 등 13개 시장에서 운용 중인 ETF 순자산이 약 421조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ETF 리서치업체 ETFGI에 따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글로벌 ETF 운용사 가운데 운용자산 기준 12위에 올라 있다.

성장 속도도 가파르다. 글로벌 ETF 순자산은 2024년 말 200조원, 2025년 말 30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5월 421조원을 기록했다. 3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100조원 이상이 늘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이 자금 유입과 운용자산 증가, 브랜드 인지도 확대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

를 구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성과는 국내와 미국이라는 양대 ETF 플랫폼이 동시에 '1000억달러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TIGER·Global X, 글로벌 ETF 성장 이끌어

국내 대표 ETF 브랜드인 TIGER ETF는 5월 말 기준 순자산 160조원을 기록했다. 'TIGER 200', 'TIGER 미국S&P 500', 'TIGER 미국나스닥100' 등 대표 지수형 상품이 연금과 장기 투자 수요를 꾸준히 흡수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테마형 ETF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TIGER 반도체TOP10 ETF'는 국내 상장 테마형 ETF 순자산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상장한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상장일 기준



미국 법인 글로벌 엑스(Global X) US 직원들이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개인 순매수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반영된 'TIGER 미국우주테크 ETF'는 순자산 2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우주테마 ETF 시장 1위에 올랐다.

미국 법인 글로벌 엑스(Global X) US 역시 미래에셋 글로벌 ETF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2018년 미래에셋이 인수할 당시 약 80억달러 규모였던 운용자산은 현재 986억달러로 약 12배 성장했다.

미국 내 ETF 운용사 약 460개 가운데 순자산 1000억달러를 넘긴 곳은 13개사에 불과하다. Global X가 1000억달러 고지에 올라설 경우 미래에셋은 국내와 미국 양대 시장에서 모두 1000억달러급 ETF 플랫폼을 보유하게 된다.

◆ '국경 없는 투자' 결실...ETF 넘어 글로벌 플랫폼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ETF 421조원 돌파를 미래에셋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성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국내 자산운용업계 대부분 국내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던 시기부터 글로벌 자산 배분과 해외 투자 확대를 강조해 왔다. 이후 미래에셋은 미국 Global X를 비롯해 캐나다·호주·유럽·홍콩·일본 등으로 ETF 사업을 확장하며 글로벌 플랫폼 구축에 집중했다.

실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최근 전체 운용자산(AUM) 624조원을 기록하며 '600조원 시대'를 열었다. ETF 사업은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핵심 축으

로 자리 잡고 있다. 연금과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부동산투자 등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축적한 운용 역량이 국내외 ETF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글로벌 사업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홍콩에서는 중국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Global X China Semiconductor ETF'와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아시아 주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Global X Asia Semiconductor ETF'가 AI 반도체 투자 열풍 속에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미래에셋은 ETF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토큰화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토큰화 플랫폼 온도파이낸스(Ondo Finance)를 통해 COPX, URA, PAVE 등 ETF의 토큰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3분기에는 홍콩 최초 커버드콜 ETF인 'Global X HSCEI Covered Call Active'의 토큰 클래스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경영 부문 총괄 대표는 "국내 TIGER ETF와 미국 Global X US라는 두 핵심 플랫폼이 나란히 1000억달러 규모에 도달하며 글로벌 ETF 사업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ETF 플랫폼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투자자들의 장기 자산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엔비디아 협력설에 LG그룹주 들썩... 줄줄이 신고가

LG전자 장중 38만500원까지 올라
피지컬 AI·로봇 사업 확장 기대감



LG전자 여의도 트윈타워 사옥 전경 /LG전자

젠슨 황 엔비디아(CEO)의 방한 소식에 시중 뭉치돈이 LG그룹주로 몰리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29.86% 상승한 38만500원에 마감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LG이노텍도 4.94% 오른 153만원에 장을 마쳤고, 장중 178만80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스템통합(SI) 업체인 LG씨엔에스도 26.27% 상승한 14만3700원에 마감했으며, 장중 14만7900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이와 함께 지주사인 LG(13.10%), LG유플러스(1.80%) 등 다른 LG그룹사 종목도 줄줄이 상승 마감했다.

황 CEO는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만나 피지컬 AI(인공지능)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LG AI연구원을 비롯한 LG이노텍, LG유플러스 등 계열사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최근 피지컬 AI와 로봇 사업 확장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주사 LG의 순자산 가치(NAV)는 37조5000억원까지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LG 그룹사들의 주가는 AI와 로봇 등 신사업에서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며 "지주회사인 LG는 단순 자회사 주가 상승으로 NAV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룹의 신사업 역량 부각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LG의 목표주가를 기준 11만50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어 그는 "그룹의 글로벌 핵심 기업과의 협력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AI 모델 개발 기업들의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AI 모델 개발 역량도 점진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삼성 KODEX ETF 순자산 200조 달성

국내 ETF 시장 점유율 약 40%

삼성자산운용은 KODEX ETF(상장지수펀드) 순자산 총액이 국내 자산운용업계 처음 200조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KODEX ETF 순자산은 201조4589억원으로 집계됐다. KODEX ETF가 200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0월 15일 100조원을 돌파한 지 226일 만이다.

운용사 측은 이는 국내 ETF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물론, ETF 리서치업체 ETFGI 기준(일본 제외)으로도 아시아 1위라고 설명했다.

삼성 KODEX ETF는 현재 236개에 이르며 국내 ETF 시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는 올해 들어 ETF 순매수가 47조7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중 43%인 20조6000억원이 KODEX ETF에 몰렸다.

국내 첫 ETF인 KODEX 200은 연초 이후 2조5000억원의 개인 자금이 유입되며 올해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 중이다. 또 올해 개인순매수 상위 30개 가운데 절반인 15개의 상품에 KODEX ETF가 이름을 올렸다.

성과도 우수해 KODEX 200은 연초 이후 수익률 122.9%를 기록했으며, KODEX 레버리지[122630]의 수익률은 326.8%에 이른다.

KODEX ETF 상품은 100조원 돌파 이후 업계에서 가장 많은 17개의 신상품을 상장했다. 이 중 13개 상품의 순자산이 1000억원을 웃돈다.

/신하은 기자

상장 전부터 뜨거운 스페이스X... 글로벌 투자 과열 '경고음'

뮤추얼펀드·ETF에 21조 몰려

이달 기업공개(IPO)를 앞둔 스페이스X의 주식에 펀드를 통해서라도 투자하겠다는 수요가 차츰 글로벌 금융투자 업계에 '스페이스X 열' 과열 경고를 커졌다.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한 영미권 뮤추얼펀드 3개와 상장지수펀드(ETF) 4개에 몰린 투자자 자금(순유입액)이 지난해 12월 IPO 계획이 공개된 이후 지금까지 140억달러(약 21조원)에 달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련 펀드 상품의 출시도 활발하다.

스페이스X에 대한 익스포저(투자액)를 갖춘 신규 ETF는 현재 최소 14개가 상장

을 앞두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포트폴리오(투자 대상 종목) 중 17.9%를 스페이스X에 투자한 영국의 대형 폐쇄형 펀드 '스코티시 모기지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는 최근 몇 달 새 순자산가치(NAV)에 약 7%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스페이스X 주식을 간접적으로 선점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몰려 펀드의 몸값이 오른 것이다.

다른 스페이스X 주력 펀드로 꼽히는 '에든버러 월드와이드'와 '베일리 기포드 US 그로스'도 올해 들어 일제히 프리미엄 거래로 전환했다. 에든버러와 베일리 펀드의 스페이스X 포트폴리오 비중은 각각 18.9%와 13.8%에 달한다.

미국 자산운용사 페데레이티드 헤르메스의 조던 슈투어트 투자 이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모든 주체가 스페이스X 지분 쟁탈전에 뛰어들고 있다"며 "매일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한 펀드를 매수하겠다는 투자자 문의를 받는데 이런 열기는 과거엔 볼 수 없던 양상"이라고 전했다.

스페이스X 주식을 파생금융상품에 연계한 ETF도 출시 준비가 한창이다.

그레닛 셰어즈, 레버리지 셰어즈, 디렉시온 등 유명 ETF 운용사들이 스페이스X 주가를 따르는 레버리지(배수 투자) 및 인버스(역방향 투자) ETF 출시를 대거 금융 당국에 신청한 상태다.

이런 ETF는 스페이스X의 주가 움직임

을 증폭해 고수익을 노리는 것이 핵심으로, 그만큼 변동성 극대화도 원금 손실 위험이 커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상품이다.

현재 스페이스X는 오픈AI와 엔트로픽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비상장 기업 지위를 갖고 있으며, 이번 달 상장을 통해 최소 1조8000억달러(2700조원) 몸값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무분별하게 관련 펀드가 쏟아지는 '스파게티 캐논' 현상까지 나타나 스페이스X 투자 열풍이 과열 양상에 접어들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FT는 짚었다. 스파게티 캐논은 '스파게티 면을 벽에 던져 달라붙는 가담만 행긴다'는 속담에서 유래된 관행으로, 인기 테마에 연관된 ETF를 공격적으로 대량 출시한 뒤 시장에서 살아남는 상품만 존속시키는 것이 골자다.

/신하은 기자